

거대한 뿌리

김수영

나는 아직도 앓는 법을 모른다
어쩌다 셋이서 술을 마신다 둘은 한 발을 무릎 위에 얹고
도사리지 않는다 나는 어느새 남쪽식으로
도사리고 앓았다 그럴 때는 이 둘은 반드시
이북친구들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앓음새를 고친다
8·15 후에 김병욱이란 시인은 두 발을 뒤로 꼬고
언제나 일본여자처럼 앉아서 변론을 일삼았지만
그는 일본대학에 다니면서 4년동안을 제철회사에서
노동을 한 강자다

나는 이사벨 버드 비숍 여사와 연애하고 있다 그녀는
1893년에 조선을 처음 방문한 영국 왕립지학협회 회원이다
그녀는 인경전의 종소리가 울리면 장안의
남자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갑자기 부녀자의 세계로
화하는 극적인 서울을 보았다 이 아름다운 시간에는
남자로서 거리를 무단통행할 수 있는 것은 교군꾼,
내시, 외국인의 종놈, 관리들 뿐이었다 그리고
심야에는 여자는 사라지고 남자가 다시 오입을 하러
활보하고 나선다는 이런 기이한 관습을 가진 나라를
세계 다른 곳에서는 본 일이 없다고
천하를 호령한 민비는 한번도 장안 외출을 하지 못했다고……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나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구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인환네
 처갓집 옆의 지금은 매립한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양젓물 술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이 우울한 시대를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한다
 버드 비숍 여사를 안 뒤부터는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괴롭지 않다 오히려 황송하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나에게 늦주발보다도 더 짹짹 울리는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비숍 여사와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진보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네에미 씹이다 통일도 중립도 개좃이다
 역사도 심오도 학구도 체면도 인습도 치안국
 으로 가라 동양척식회사, 일본영사관, 대한민국 관리,
 아이스크림은 미국놈 좃대강이나 빨아라 그러나
 요강, 망건, 장죽, 종묘상, 장전, 구리개 약방, 신전,
 피혁점, 곰보, 애꾸, 애 못 낳는 여자, 무식쟁이,
 이 모든 무수한 반동이 좋다
 이 땅에 발을 붙이기 위해서는
 제 3인도교의 물 속에 박은 철근 기둥도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좀벌레의 솜털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괴기영화의 맘모스를 연상시키는
 까치도 까마귀도 응접을 못하는 시꺼먼 가지를 가진
 나도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대한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CS204 거대한 트리

20160042 구인용

전산학과 최광무 교수님은 국내 학계에서 오토마타 분야로는 최고로 인정받는 분이다. 석사 논문에서 한글 모아쓰기 오토마타를 최초로 제안하여 컴퓨터와 휴대폰 등에서 한글을 키보드로 입력하는 데의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였으니, 지금 이 에세이가 반듯한 글자로 작성될 수 있는 것도 최 교수님의 덕이다. 또 1984년, KAIST의 원형이 대전에 자리잡았을 때부터 교수를 해오신 KAIST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그런 최 교수님의 수업을 학부에 입학하자마자 수강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1학년 1학기, 고등학교에서 기초과목 일부를 선이수(先履修)하고 입학한 나는 근거 없는 패기로 세 개의 과의 전공필수 과목을 앞당겨 들었다. 덕분에 바이오및뇌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암기력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 아프게 배울 수 있었지만, 반대로 최 교수님의 이산구조 수업은 A+라는 유례없는 학점을 선물하여 전산학과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전공과목에서 A+를 받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벌써 한 해가 지났지만 과목코드 CS204, 이산구조 수업 시간의 풍경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멧쟁이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시는 최광무 교수님은 실물 화상기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고수하셨는데, 지독한 악필이셔서 (...) 잠시라도 집중을 놓치면 남은 시간은 초점 없는 눈으로 해독해야 할 필기가 쌓여가는 것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또,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여유, 혹은 천성적인 자유로운 성격 때문인지 가끔 진도와 무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일이 잦았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당시 장안의 화제였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었다. “알파고가 4국에서 이세돌한테 ‘저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니?”라는 말씀은 하도 많이 하셔서, 기말고사 보너스 문제로 출제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으니까.

알파고와 쌍벽을 이루는 소재는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라는 시였다. 수업을 한창 진행하시다가,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필기를 바라보실 때면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앉은 학생에게 “애,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 있지? 그거 한 번 읽어보려?” 하고 물으셨다. 나머지 학생들은 웃었고, 지목당한 학생은 당황하며 시를 황급히 검색했다. 시를 낭송하는 동안 교수님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형이하(形而下) 너머를 잠시 바라보시다가, 시를 중단시키고 잠시 정적을 공유하다가, 다시 아무 일 없는 듯이 수업으로 돌아오시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도 반복되어, 나는 이산구조에서 배우는 트리(tree)라는 자료구조를 끌어다 우스갯소리로 “CS204는 거대한 트리를 배우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다.

고백하자면 나는 그리 좋은 학생은 아니었다. 성적은 꽤 높게 받았으나 수업시간엔 항상 강의실 맨 뒷줄에 앉아 다른 과목 과제를 하던 학생이었고, 때문에 내가 “거대한 뿌리”를 직접 읽는 일은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야 “거대한 뿌리”를 끝까지 처음 읽어보게 되는 것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완독했으니 감상을 말하자면, 정말 난해하다. 난데없이 등장한 “버드 비숍 여사”는 또 누구이며, 앓는 법에 대한 단상은 왜 나온단 말인가. 먼저 수업시간에 4년까지 읽는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교수님이 시켰다지만 학우들 앞에서 ‘네에미 씹이다’, ‘쫓대강이나 빨아라’ 등의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더욱이 김수영의 입에서 나오는 ‘전통은 아무리 더러워도 전통이라도 좋다’ 같은 말의 의미를 나는 파악할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김수영은 보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김수영은 “풀”, “폭포”의 김수영이었다. 변화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논하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장려하고, 위로하는 시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를 다시 읽으며 나는 글에서 드러나는 그는 훨씬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다. 박동해처럼 반자본주의(라고 하면 다소 성급한 일축일 수도 있겠으나)를 평생에 주장해온 사람도 아니고, 윤동주처럼 일관되게 맑은 것들과 부끄러운 것들만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김수영의 시는 그가 ‘변화’를 노래했던 만큼, 글 자체도 변화한다. 분노와 부끄러움, 저항, 달관과 수용 등 다양한 태도가 드러난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읽은 책도 김수영 시선이어서, 그가 어떤 순서로 시들을 발표했는지 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글들을 조합해서 시인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할 수 있다.

먼저, 그는 모순에 분개한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에서 그는 그의 주변에 이루고 있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스스로가 ‘웅장하게 반항한다며 부끄러워하지만, 그의 저항은 몇 개의 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풀”에서는 민초의 곳곳한 강인함을, “폭포”에서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굳은 의지를 담는다. “눈”에서는 ‘기침을 하자 /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며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들에게 소리를 낼 것을 호소하지 하며, “하…… 그림자가 없다” 라는 시에서는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싸우고 있다’라며 스스로를 저항하는 무리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이 시기의 그의 글은 ‘혁명’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실제로 8·15 광복과 4·19 혁명을 겪었던 그이다.) 그러나 그의 글은 마냥 혁명을 찬양하지는 않는다. “푸른 하늘은”이라는 시에는 ‘혁명은 / 왜 고독한 것인가를 // 혁명은 /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과정에서의 괴로움을 반추한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조금은 혁명과 떨어져 살았는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신을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 알 것이다 (구름의 파수병)’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저항을 포기한다.

‘나는 너무나 많은 첩단의 노래만을 불러왔다 / 나는 정지(停止)의 미(美)에 너무나 등한하였다 (서시)’

‘내가 으스스하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나는 그 으스스한 설움의 풍경마저 싫어진다. // 나는 너무나 자주 설움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거미)’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을 생각하며)’

‘어서 일을 해요 변화는 끝났소 (시)’

그가 스스로를 혁명의 중심에 위치하지는 않았기에 이것이 꼭 배신이라고 읽을 필요는 없다. 애초에 나는 그를 비겁하다 욕할 자격이 없다. 다만, 그래도 교과서에서 배웠던 대표적인 저항시 “폭포”의 저자가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 괴롭지 않다 오히려 황송하다 역사는 아무리 /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거대한 뿌리)’라고 타협하는 것은 조금 속상하다.

그러나 다시, 그를 비겁하다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김수영의 글은 지극히 개인적이다. 그리고 진솔하다. 예컨대 “이 한국문학사”에서 선배 문인들을 실명을 언급해가며 비판하는 용기와, “성(性)”에서 아내와의 섹스를 노골적으로 다루면서도 ‘그년하고 하듯이 헛바닥이 떨어져나가게 / 물어제끼지는 않았지만’이라고 이야기하는 반응이 그런 것을 드러낸다. 앞서 인용한 시들에서 그는 그가 타협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을 일인칭으로 진솔하게 드러낸다. 그의 인간적인 과정을 이해한다면 그를 욕할 수는 없다. 더욱이, 그는 변절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역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정주와 같은 적극적인 “앞잡이”들과는 분명 다른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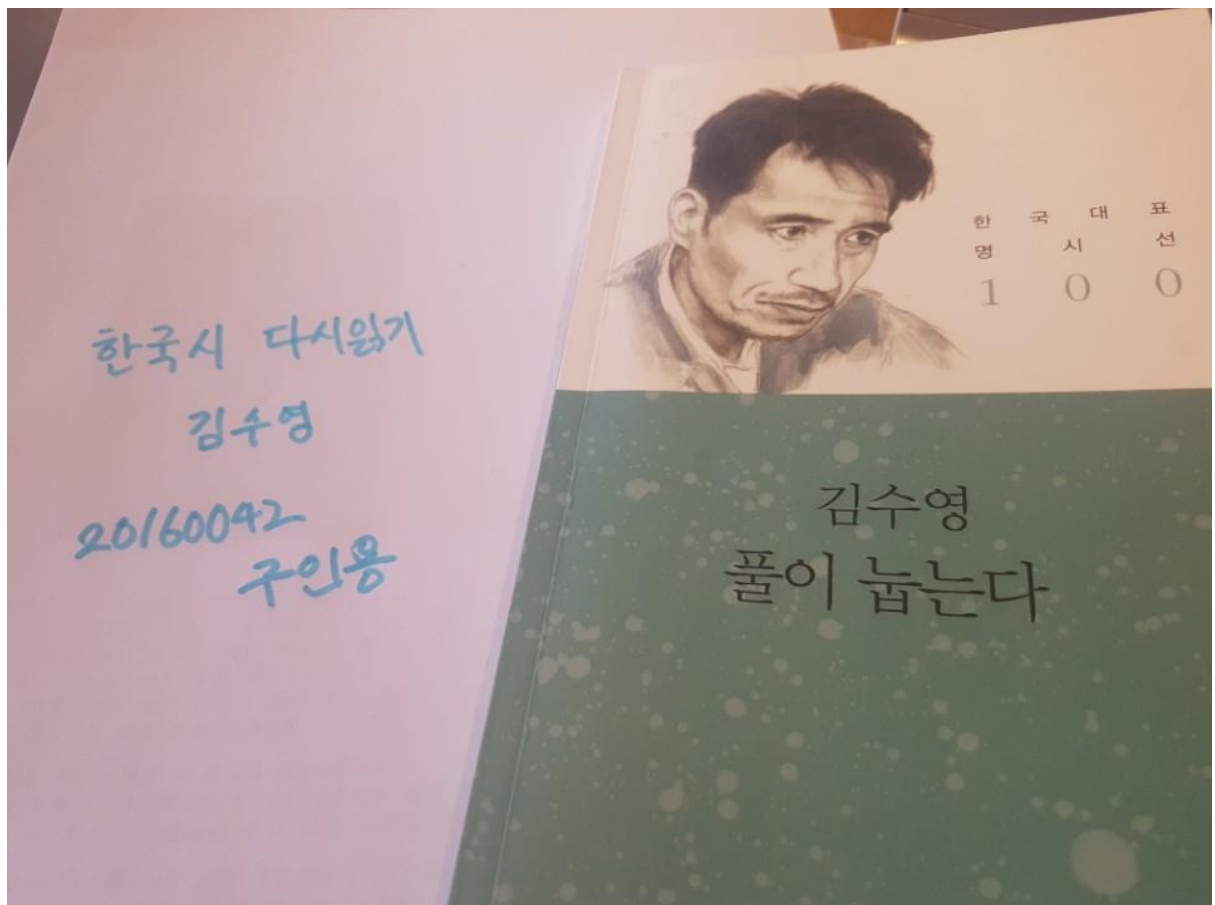
아무튼 김수영의 이런 입체적인 변화는 덕분에 그만의 독특한 시각을 드러내는 시도 가능케 한다. “현대식 교량”이라는 시에서 그는 젊은이들과 자신이 교량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발견한다. 과거 자신이 가졌던 저항적인 태도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다시 그들을 이해하는 자신에서 경이를 느낀다. ‘적을 형제로 만드는 실증(實證)’을 보았다고 탄복하는 그의 발견이, 나에게는 반대로 80 년대에 대학생활을 거치고도 우파를 자처하는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 김수영의 변천사에 대한 결론은 무엇일까. 답은 사랑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반항에 있지 않다 / 저 젊은이들의 나에 대한 사랑에 있다 (….) 젊음과 늙은이 엇갈리는 순간 / 그러한 속력과 속력의 정돈

속에서 / 다리는 사랑을 배운다 (현대식 교량)과 ‘차라리 위대한 것을 바라지 말았으면 (...) 나의 위대의 소재를 생각하고 더듬어보고 짚어보지 않았으면 (...) 이것이 사랑이나 / 낱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나 (나의 가족)’ 등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치열하고 괴로웠던 스스로를 돌아켜본다.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때로는 변화의 이유이자, 변명이자, 위안이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나는 그의 결론이 마음에 든다.

“거대한 뿌리”에서도 결국 더러운 역사라도 역사로서 좋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버드 비숍 여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앓음새를 수정하는 것은 벗에 대한 이해 때문이다.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이제야 이 난해한 시가 담은 깊은 철학을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시에서 이야기하는 ‘더러운 역사’는 비단 한국 사회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변천을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 그것은 분명 시인 자신도 상상 못할만큼 거대하고, 거대하다.’

최광무 교수님께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 시가 그에게도 그리 얽혀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최 교수의 전공 분야인 오토마타를 잠시 생각해본다. 오토마타란 현재의 상태에 어떤 입력이 추가될 때 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지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현재의 모습,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예측. 최 교수는 이런 것을 평생 고민하며, 수만 개의 트리를 그리며 살아오셨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거대한 뿌리라는 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은 나에게 우연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풀이 눕는다”, 김수영 (시인생각)

1 판 1쇄 발행 2013년 7월 29일